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 '고흥형 호티센터' 운영

**‘미래 농업 인재’ 체계적 육성
산업과학고 및 실증기업 연계
첨단 온실·IoT 환경제어 실습
“지역 농업 경쟁력·혁신 확보”**

고흥군이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고흥형 호티센터(horti-center)’ 운영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벨리에 입주해 있는 실증기업 ㈜그린씨에스와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가 협력해 지역 내 스마트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호티센터로 불리는 세계원예센터(World Horti Center)는 네덜란드 원예산업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원예분야 첨단기술 개발과 상용화, 원예기술과 시설물 수출, 기업 연계 등 스마트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군은 고흥형 호티센터를 만들어 스마트팜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전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흥산업과학고 스마트팜 학과 학생들에게 최신 스마트팜 기술을 익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

다. 주요 교육내용에는 첨단 온실 운영, 사물인터넷(IoT) 기반 환경제어 시스템 실습, 스마트팜 데이터 분석 및 활용법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고흥산업과학고 내에도 실습 시설을 구축해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운영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기술

을 활용한 농업 혁신을 목표로 함은 물론, 향후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따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수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스마트팜 기업 취업 및 창업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스마트팜 산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이를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며 “고흥형 호티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습득하고 지역 농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장흥군,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지원
금리 1.8%, 2년 거치 방식**

장흥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약 96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94개 농가를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확정된 농가는 관내 농·축협에서 오는 6월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사료 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지난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한·옥우 264개 농가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12월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축산과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사료비 부담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상환유예조치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재개관 기념 ‘낭만콘서트 5080’
여수시민회관**

여수시 대표 문화공간인 ‘시민회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2일 여수시는 지난해 7월 휴장에 들어갔던 시민회관의 리모델링이 완료돼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민회관은 연면적 5,26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연장으로, 이어진 지 38년이 넘으면서 건축물 및 무대 기계장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무대 기계, 조명, 음향 장비 등을 새롭게 단장했으며, 관람객 편의를 위해 객석 의자 787석을 교체하고 상수도, 화장실을 추가 정비했다. 오는 12일 오후 3시에는 여수시민회관 재개관을 기념하는 ‘낭만콘서트 5080’을 개최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광양시 의미있는 치매 노인 보호센터에서 관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여수시민회관이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
고흥군, 30일까지 신청·접수**

고흥군은 유자 주산지로서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는 신청자가 1년 동안 자신만의 유자나무를 선정해 이름표를 부착하고 수확시기에 직접 유자를 수확할 수 있는 도시·농촌 공감형 프로그램이다. 총 200주의 유자나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고흥군 유자축제 행사장 인근 풍양면 양리마을에서 진행되며, 유자나무 분양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고흥군 및 고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1주당 7만원으로 유자 10kg과 체험비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고흥의 유자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농업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에서는 2023년 350여명(82주), 2024년 560여명(129주) 등 지난 2년간 1000여명이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제철소 프렌즈 재능봉사단, 치매 어르신 공연 봉사

광양제철소는 산하 프렌즈 재능봉사단이 최근 광양시 의미있는 치매 노인 보호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 제공 및 위안 공연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광양제철소 프렌즈 재능봉사단은 지난 2004년 창단된 이래 결혼이주여성 대상 인형극단 사업,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김장김치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웃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약 300명 이상의 봉사단원들이 활동 중이

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광양시가야라이온스, 광양시 가족센터 직원들을 포함한 약 75명이 참여했으며 치매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르신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퓨전 국악 장구, 판소리, 인도네시아 전통 무용 등을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선보였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50여명의 봉사자들과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함께 광양시 가족센터 조리실에서 제작한 소보로와 단팻빵 총 150개를 전달했다.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과 이승복 광양제철소 공정

품질부소장도 빵 만들기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프렌즈 재능봉사단원들은 “치매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벚꽃아래 SNS 오프라인 이벤트
오늘 순천 장대공원 옆 동천 일원**

순천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 홍보 및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3일 순천 장대공원 옆 동천에서 ‘벚꽃아래 SNS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청년센터, 순천만국가정원 등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각 SNS 채널을 홍보하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시민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순천시 유튜브 구독 시 순천시 굿즈 증정, 청년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룰렛 이벤트 참여, 순천만국가정원 인스타 팔로우 시 예쁜 꽃 한 송이와 포토 엽서 제공 등을 진행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는 아름다운 동천 벚꽃을 배경으로 거울 포토존도 준비해 젊은 세대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카카오톡(순천시청), 페이스북(순천시), 네이버 밴드(순천시), 인스타그램(@suncheonsi), 유튜브(순천시), 네이버 블로그(순천SNS), 당근마켓(순천시청) 등 7개의 S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8만명이 구독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순천 소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감 있는 소통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이벤트가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순천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 본격 추진

보성군은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간 보성군 귀농·귀촌 희망자 7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촌형 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와 보성군이 협력해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실제 농촌에서 거주하며 일 자리, 농촌생활, 지역공동체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군은 회천면 ‘다향올림촌’과 복내면 ‘한국전연염색 숲’ 등 총 2개소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향올림촌’ 참가자들은 지난 1일부터 입소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보성에서의 일상을 체험하고 있다. 7명 대상... 두 달간 농촌 체험

‘한국전연염색 숲’의 경우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대한민국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 ‘그린대로’에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참가자들은 마을 이장 및 주민들과의 만남, 지역 탐방, 귀농·귀촌 관련 일자리 체험, 보성군 주요 작물 재배 기술 및 수확물 관리 실습, 농기계 사용법 교육 등 실제 농촌 정착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체험을 받게 된다. 특히 보성군에서는 주요 산업인 차(茶)를 비롯한 농산물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군 정체성과 생활 기반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개월간 마을에 체류하는 연수생에게는 재능기부 활동 참여 시 월 최대 30만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참여자가 머무는 동안 보성의 농촌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시민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기가 운영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 전남도 외 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061-852-2282) 또는 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91)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양중수 기자